

폭격 폐허 속 '전쟁범죄' 증거 모으는 우크라이나

정부, 채증팀 보내 현장 기록

국제형사재판소 소송 대비

"증거 영상 세계에 보여줄 것"

우크라이나가 폐허 속에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송을 위해서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폭격 피해 현장에 영상 채증팀을 파견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아우(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마을에서 만난 군 영상 촬영자 세르히 리센코 씨는 WP에 "이것은 러시아의 범죄를 기록하기 위한 것 이상"이라며 "우리는 ICC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와 동행한 미콜라 메딘스키 씨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지만 동시에 우리 언론이 평화로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범죄의 또 다른 증거로서 이 영상을 세계에 보여주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리센코 씨와 촬영 중인 곳은 지난 4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이호르 모하예프(54) 씨의 집이었다.

모하예프 씨는 오른쪽이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로 비틀거리며 무너진 집 위를 걸었다. 멍한 표정

의 그는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난 채 먼지로 뒤덮인 가재도구를 들춰냈다.

그는 이번 공습으로 집과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 딸을 잃었다. 손자 중 2명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평소 11명이 거주하지만 하필 폭격 당일 키아우에서 온 딸의 가족을 비롯해 그의 조카, 조카의 남자친구 등까지 집안이 팍 찢었다고 했다.

공습 당시 식료품 등을 사러 나갔던 그의 아내와 어머니 등은 차 안에서 숨졌다. 열두 살짜리 딸 마샤, 조카의 남자친구도 모조리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다. 군사적인 공격이라도 민간인 사상자 비율이

매우 높으면 전쟁범죄가 된다고 WP는 해석했다. 의료시설, 학교, 기타 주요 민간 시설, 군사 목적이 아닌 무방비 상태의 마을과 주거지에 대한 공격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런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몹시 어렵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WP는 전했다. 모하예프 씨 마을이 왜 공습의 표적이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직 없다.

리센코 씨는 "러시아군 전투기 조종사가 오직 양심을 품고 주먹가를 폭격했다"며 "단순히 탄약을 없애고 싶었다면 근처 숲이나 들만에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아우 인근 소도시인 이르핀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 여성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군이 이르핀에 포격을 시작하자, 많은 시민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아우(키예프) 외곽 이르핀의 공장과 상점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미, 우크라이나 'F-16 폴란드 제공' 검토

젤렌스키, 미 의회에 지원 호소

폴란드는 "전투기 안 보내" 부인

미국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CNN 방송,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폴란드 및 다른 동맹국들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미그(MiG)-29 전투기 등을 넘기면, 미국이 F-16 전투기를 폴란드에 제공해 폴란드의 군사력 공백을 채워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조종사 훈련 여건상 폴란드가 보유한 러시아산 미그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유럽 국가들에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폴란드는 지난주 미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에 자국이 보유한 미그기를 넘길 경우 미제 전투기를 자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란드 정부는 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자국 공방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력 공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망설여왔다.

그런 까닭에 지난달 27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EU 국가가 전투기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가 해당국이 이를 부인하면서 난감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투기를 수령하기 위해 폴란드로 파일럿까지 파견했지만, 폴란드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됐다. /연합뉴스

러시아 곳곳 반전 시위 하루 4300명 체포

시베리아 도시까지 시위 확산

하루 시위대 체포 기준 일일 최대

6일(현지시간) 러시아 곳곳에서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하루만 4300명 이상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OVD-인포'는 이날 하루 56개 도시에서 최소 4366명이 구금됐다고 밝혔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체포된 것은 2021년 1월이 마지막으로,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체포된 후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나발니는 신경제 중독에서 회복 중 독일에서 귀국했다가 러시아 당국에 곧바로 체포됐다.

러시아 독립 언론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들을 보면 거리로 나온 시위대 수천 명이 "전쟁 반대", "부끄러운 줄 알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수십 명이 구금되고, 모스크바의 유명 어린이 백화점 안에서 시위자들이 경찰에 구타당하고 발길질 당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러시아 영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에서는 한 여성이 경찰에 "여기 파시스트 지원하러 왔다"고 따져 묻는 모습이 트위터도 올라왔다.

과거 나치의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이 여성에게 경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크렘린궁의 주장을 반복하고는 동료들에게 "모두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여성은 연행됐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구금자 숫자는 약 3500명이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는 최근 이뤄진 시위대에 대한 하루 체포 기록으로는 최고 숫자라고 전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시위에 5200명이 참가했으며, 경찰이 모스크바에서 1700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750명, 기타 도시에서 106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 2년 전 세계 600만명 사망 실제 사망자 2천만명 넘을 수도

코로나19 팬데믹 2년만에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600만명에 근접했다.

AP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를 인용해 이날 오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약 59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해 7개월 뒤 첫 100만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누적 사망자가 200만명이 됐고 이후 약 3개월마다 100만명이 숨져 지난해 10월 말 누적 사망자가 500만명을 기록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는 7일 0시(GMT 기준) 현재 누적 사망자가 601만여명이라고 집계했다.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순이다.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는 페루(6천257명), 불가리아(5천223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4780명), 헝가리(4604명) 등이 많았다. 한국은 누적 사망자수가 65번째, 인구당 사망자수는 108번째(인구 100만명 이상 국가·지역 기준)로 많다.

AP는 실제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런 집계보다 더 많다고 추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의료 수준이 비교적 높은 미국의 사망자가 약 95만8000명 정도인데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제대로 된 검사나 집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대표 에두아르 마티외는 보고된 숫자의 거의 4배, 즉 2400만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인니 발리섬 외국인들에 활짝 동남아 국가 무격리입국 확대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섬이 7일 외국인 백신 접종자의 무격리 입국과 도착 비자 발급을 개시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장조경제부 등에 따르면 발리섬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까지 마친 외국인 관광객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다.

관광객들은 발리 도착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 음성인 나오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고, 도착 3일째 PCR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발리섬 이외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한국과 미국, 호주 등 23개국에서 발리섬에 오는 관광객에게 도착 비자 발급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2020년 4월부터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